

# 與 “외교·안보 성과” 野 “서민경제 파탄”

## ■ 박근혜 정부 2년 정치권 평가

### 문재인 “민주주의·헌정질서 처참히 붕괴”

### 이정현 “30년 발전을 준비한 2년 이었다”

출범 2주년을 맞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운영에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경제 파탄과 분열과 대립의 2년이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탄탄하고 기본이 철저한 국정운영을 통해 30년의 발전을 준비한 2년이었다”면서 “현 정부에서 모든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과 국민이 열매의 맛을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은 “국내적으로

불 때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보면 권력형, 즉 큰 비리가 전혀 없었다”면서 “국민에 인기는 없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각종 개혁에 속도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통 부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임박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소通的 적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인사에 잇따라 실패했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은 경하게 수용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그 수준에 맞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혹평을 쏟아냈다.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인사말에서 “박근혜 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 분열과 대립의 2년이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은 버려졌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렇게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가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치학에 속도를 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첩 인사를 고집하며 국정 혼란을 자초했고 국민과의 약속을 한번이 뒤집으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고도 꼬집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게 박근혜 정부 실패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배신의 2년”이라고 비판했고,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도 “박근혜 정부는 민생파탄, 신뢰파탄 즉 ‘야과 정권’”이라고 비교했다.

정치 분야 토론회자 김만홍 한국정치이카 데미 원장은 “지난 2년을 후보 때의 공약 준수 여부와 국민 요구에 얼마나 반응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모두 ‘뺑뺑’이라며 “박근혜정부는 핵심 공약과 집권 기반을 설명 없이 실종시킨 특이한 정권”이라고 쓴소리했다.

경제 분야 토론회자 김진표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출발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해야 할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집권 2년차에 느닷없이 발표한 것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었는데도 재벌 개혁은 하지 않고 노동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다고 하니 성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대통령 “우리 경제는 불어터진 국수”

### 수석비서관회의서 경제활성화 최우선 목표 강조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이같은 비유를 동원하면서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엔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통통 불어터진 국수”라고 말했다.

또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좀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났다”며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제때제때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좀 중요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통과가 (해야 한다)”며 “지금 1년 넘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힘을 합쳐 통과시키고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법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3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경제 관련법안의 즉각 처리가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성화, 서민경제회복에 둘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실민심의 주요 화두가 경제살리기였던 만큼 이를 반영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내일모레면 정부 출범 2주년이 되고 3년차가 되는만큼 이제 모든 역량을 국가미래 기틀을 만드는 데 쏟아 아야 하겠다”며 “금년도 국정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와 우윤근 원내대표(오른쪽), 주승용 최고위원(왼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 4·29 보선기획단장에 양승조 의원

### 최고위, 임내현 등 위원 임명...수석사무부총장·전략기획위원장 인선 결론 못내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4·29 보선선거 기획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선거기획단장에 양승조 사무총장, 부단장에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거기획단은 재보선 승리를 위해 선거 전략과 주요 이슈 등을 계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에는 유대은, 임내현, 박남춘, 김민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새정치연합은 기획단 출범과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 성남 중원, 광주 서구 을 등 3곳의 후보 공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내에선 전정배 전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광주 서구 을을 비롯해 3곳 모두 경선으로 후보를 공천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천 전 의원은 23일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서구를 경선 참여 및 무소속 출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고위 관계자는 “전략공천의 경우, 또 다시 계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공천 실무를 관

장하는 수석사무부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 인선안도 논의됐으나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수석사무부총장은 그동안 수석 최고위원의 추천으로 인선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표의 직접적인 임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문 대표의 당직 인선에서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배제됐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막판 실무 당직 인선을 놓고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4일 비공개로 최고위를 속개해 당직 인선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 뒤, 25일 최종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증세·개헌 놓고 뜨거운 공방 예고

###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이완구 총리 첫 ‘데뷔전’

### 野 장병완·김광진 의원 질의

오는 25~27일 사흘 동안 실시될 대정부 질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당일 시작되고,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국회 데뷔전이 때문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다시 구성된 이후 실시되는 첫 대정부 질문이라는 점도 포인트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증세와 복지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며 법안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폐’를 통한 증세를 주장할 전망이다.

순천출신 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은 25일 정치외교 통일분야에서,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오는 26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비교세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 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구조조정론으로 야당의 증세 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의원 김광진 의원

이와 함께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책임총리 요구를 비롯해 개헌 문제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북한인권법 등도 주요 메뉴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를 지낸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개헌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개헌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여 여당 지도부를 다소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개헌 공세에 대해 경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 등도 대정부질문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교육, 말씀, 기도, 상담  
행복한 목회현장!!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지원자격: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심리상담사, 가정사역상담사, 도형상담사 자격 취득!!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교육인내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 교육기간: 2015년 3월 2일 ~ 12월 중순(약 10개월)
- 교육시간: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오전 9:00-1:20

재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 원서접수시 전형료: 10,000원

원서접수 현재 접수중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2015년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혜택: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문의할 곳 062)605-1063, 1112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광신대학교